

5·18 33주년... 진혼의 사진전

계엄군 출신 사진작가 등 10명 부산서 '5월展'
현장 사진서 다뤄까지 140여점 전시

다시 5월이 다가온다. 광주민중항쟁 33주년. 5월 광주는 그 세월 동안 예술로 어떻게 복각되고, 기억되고, 재현되어 왔을까. 사진작가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5·18을 모티브로 한국 대표 사진작가 10명이 작업한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기획전이 열린다. 1980년 당시 생생한 현장을 담은 포토 저널리즘 사진부터 5월을 다양한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현대 사진까지 다채로운 성격의 사진이 망라됐다. 1980년 5월, 평범한 일상을 살던 광주시민들이 찍은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물려진 거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가 아닌,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140여점의 작품은 부산 고은 사진미술관과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개관 이래 두 관을 모두 사용하는 건 이번 기획전이 처음이다. 전시는 5월18일(7월31일까지) 개막한다.

전시기획자 송수정씨는 "예수는 33세에 십자가에 못박혔고, 불교에서 33은 모든 수를 의미하며 이슬람에서는 천국에서 33세 이후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모든 종교에서 유독 33이라는 숫자가 저마다 의미를 갖는 게 예상치 않고 5월 18일날 개막하는 이번 전시가 광주항쟁 33주년에 열리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은사진미술관에서는 5·18 관련

다큐멘터리 작품을 소개한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계 계기가 돼 사진가의 길을 걷게 된 이상일씨는 20여년 가까이 작업한 '망월동' 연작을 선보인다. 외롭게 놓인 영정 사진과 망월동역의 표정을 담은 '망월동' 시리즈는 일본 '이나 노부오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일본 도쿄도사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5·18 당시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매일 기자였던 나경택씨와 중앙일보 기자였던 이창성씨는 생생한 항쟁 현장을 포착한 필름을 전시한다. 나씨의 사진필름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에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였던 노순택씨는 망월동 영정사진과 운주사 미륵불상을 모티브로 한 '망각기계'를 전시하며 김은주씨는 사건 현장에 선 피해자를 어머니를 촬영한 '오월 어머니'를 선보인다.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에서는 5·18을 재해석한 작품을 만난다.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1995년)에 참여했던 오형근씨의 '오월 이야기'는 경찰로 분장한 영화배우와 현장에 파견된 진짜 경찰의 모습을 한 화면에 등장시켜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묻는다. 또 강홍구·권순관·조승·오석근씨도 작품을 전시한다.

19일에는 '사진과 기억'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이상일의 '망월동' 중 고(故)최미애씨를 찍은 작품.



영화 '꽃잎'(1995년) 금남로 촬영장에서 시위대로 출연할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오형근의 '오월 이야기'

'화려했던 봄날' 그날의 사진 찾습니다

'아름다웠던 오월, 그날의 사진을 찾습니다.'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5월 전시 '물려진 거울'에는 '오월의 사진첩'이라는 섹션이 있다. 5·18 기간 중 시민들이 촬영한 일상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광주민중항쟁

이 평범한 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 당시 기자들의 사진과 함께 전시된다. 전시팀은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5·18을 전후한 기간 결혼식, 생일 잔치, 소풍, 나들이 등 일상을 찍은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 당시 작

전명이었던 '화려한 휴가'가 시민들의 '화려한 봄날'을 어떻게 일그러뜨렸는지를 통해 당시의 따뜻한 기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트라우마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전시팀의 설명이다. 사진 수집 문의 062-360-0543, 051-746-0055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4강-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여행의 방식 배우고 휴식의 숨통 열고 '길' 하나로 제주관광 패러다임 바꿨다"

"내 고향 제주도에선 진짜 여행이 뭔지, 휴식은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9일 광주 서구 삼무지구 라마다플라자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서명숙(57) 제주올레 이사장은 '올레길'의 창조과정을 설명하며 '길' 하나로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꿔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제주올레는 지난 2007년 9월 첫 번째 코스를 개장한 이래 지난해 11월 까지 제주도를 잇는 26개 코스, 425km의 길을 개척하면서 600만명이 한계

라던 제주 관광객을 지난 해 1000만명까지 끌어올렸다.
서 이사장은 불과 수년 만에 창의적인 생각 하나로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코스를 만들어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퉀 올레길을 본 딴 '길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올레길'은 로열티를 받으며 일본까지 진출했다.
서 이사장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에



별릴 수 있었다"며 "올레길을 통해 사람들이 여행의 방식을 배웠고, 휴식의 숨통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5주차 특강은 김동호(76)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을 초청해 오는 16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호텔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반도 긴장 고조...J프로젝트 기공식 5월로 연기 北 미사일 동시 발사 가능성...한·미 정보감시태세 '워치콘' 한단계 높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의 여파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 기공식도 연기됐다.
전남도는 10일 "애초 오는 19일 예정됐던 J프로젝트 기공식을 5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20일 개막하는 국제행사인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맞물려 19일 기공식을 하기로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와 미사일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일정을 미뤘다.
J프로젝트는 삼호·구성·삼포·부동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뉘 추진되는데, 구성지구(산이면·21.87km)는 사업비 9000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골프장, 레저주택, 골프빌라, 시니어 빌리지 조성과 호텔 및 리조트, 통합

의학병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성지구는 지난 2003년 J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기공식을 갖는 등 사업(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 기공식도 연기됐다.
한편 10일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부터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수단과 함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CNN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약 10마일(16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액체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발사할 때까지 2주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방항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동남쪽으로 쏘 우리 영공을 지나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회견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임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함평다이내스티컨트리클럽이
귀하의 품위를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한쪽의 수채화 같은 준비된 명작들을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함 - 독특한 분위기의 27홀의 넉넉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움 -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립니다. (자체제작한 천연비료사용으로 귀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신선함 - 매홀마다 특색있는 홀구성은 귀하께 신선함을 드립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전화 061-320-7700·7777